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4/12℃ 목포 7/12℃ 여수 7/1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3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60호 1판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새만금 깃발축제 27일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방조제(33km) 개통을 기념한 '새만금 깃발축제'가 방조제의 중간지점인 신시도 광장에서 열렸다. '희망, 열정, 소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된다. /새만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의회 2014년 폐지…道는 존치

국회 행정개편특위 특별법 처리…구·군정위원회 설치로 보완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된다. 이번 6·2지방 선거가 마지막 구의원 선거가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지역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도(道)는 그대로 존치토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역단체인 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신설되는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보고토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가는 행정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나아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위의 이런 도 기능 축소 및 기초의회 폐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 원천무효로 돌리는 반역사적 조항"이라면서 "또 시군 통합을 통해 도의 역할을 자연사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원구성이 달라지는 점 등을 이유로 여야간 합의까지 갔음에도 결국 처리에 실패했던 17대 국회처럼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 림

제37회 光日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37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 접 수 : 2010년 5월 6일(목)까지
- ■ 발 표 : 2010년 6월 1일(화) 광주일보
- ■ 시 상 :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 시상일시 : 2010년 6월 6일(일) 오전 10시30분
- ■ 장 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 ■ 문 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42)

주최 : 光州日報社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오은선 마침내 해냈다

여성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철녀'(鐵女)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세계 여성 산악인으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개봉을 모두 오르는 데 성공했다. 〈관련기사 3면〉

오 대장은 27일 오후 6시16분(이하 한국시간) 북면 버트레스 루트를 통해 무산소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 정상에 섰다. 이날 오전 5시 캠프4(7200m)를 출발, 13시간의 사투 끝에 정상을 밟았다.

초속 14~20m로 부는 강한 바람과 영하 30℃에 가까운 혹한의 추위를 뚫고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가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오 대장은 정상에 오른 직후 태극기를 꺼내 들고 "국민과 기쁨을 나누겠다. 정말 고맙습니다"고 말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14좌 완등은 여성으로 세계 최초며 남녀를 통틀어서도 1986년 라인홀트 메스너(이탈리아) 이후 세계 20번째다.'

엄홍길 대장이 지난 2000년 7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박영석(2001년), 한왕용(2003년) 대장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4번째다. 특히 "대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싶어 무산소 등정을 고집한다"고 말했던 오 대장은 14좌 중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와 2번째 높은 K2(8611m)를 제외하고 12개 봉을 무산소로 올랐다.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출발한 오 대장은 안나푸르나에 딸린 타르푸출리(5663m)에서 고소적응 훈련을 거친 뒤 지난 4일 안나푸르나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했다.

컨디션을 조절한 오 대장은 지난 22일 베이스캠프(4200m)를 출발해 그날 오후 캠프2(5600m)에 무사히 도착하며 등정의 첫발을 무사히 내디뎠다.

안나푸르나 14좌 완등에 성공한 오은성 대장이 태극기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렸다. KBS TV 촬영.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캠프2에서 숙박하고서 오 대장은 24일 정상 바로 밑인 캠프4에 도착해 25일 오후께 1차로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 공격 당일 초속 2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캠프1로 잠시 후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나푸르나에 도전했다가 나쁜 날씨 때문에 실패한 바 있는 오 대장은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예정보다 이틀 늦은 이날 다시 한 번 정상을 향했으며 안나푸르나는 마침내 오 대장에게 정상을 허락했다. /연합뉴스

출구전략 시동…내년 예산 지출 축소

재정건전성 최우선

2011년 예산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 진다. 재정정책의 무게가 위기관리에서 출구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으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등 세입 기반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창출 등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각 부처에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내 기존 사업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청사 신축 및 시설·장비 도입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여비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요구토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둠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